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결	담당자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재	임도윤	이충기	이충기인	
		참석위원확인				
일시	2025. 12. 30.(화) 16:30~17:07					
장소	대학본부 본관 612호 회의실					
참 석 자	재적 위원	10명				
	참석 인원	9명 (장영재, 이충기, 이석호, 손현례, 성욱준, 장익영, 김용출, 최우영, 이은실)				
	불참 인원	1명 (허진)				
	기타 참석자	이혜원(예산팀장), 임도윤(주무관)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 동결</li> <li>○ 대학원: 입학금 동결, 수업료 동결</li> <li>○ 학부 계절수업 수강료: 동결</li> <li>○ 프라임칼리지 계절수업 수강료: 동결</li> <li>○ 해외대학 복수학위제: 850,000원</li> </ul>					
회의록	붙임					

#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예산팀장 이해원 재적위원 10명 중 9명 참석 성원 보고
- 위원장 장영재 회의 개최 선언(2025.12.30. 16:30)
- 위원장 장영재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설명 요청
- 예산팀장 이해원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설명
- 위원장 장영재 위원들에게 의견 개진 요청
- 손현례 위원 대학원 등록금 인상 의견 제시
- 위원장 장영재 2027년부터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등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등록금 역시 재검토 사항에 포함되므로 현재로서는 대학원 등록금 동결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이은실 위원 국립대·온라인 운영 등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학교 운영에 재정이 뒷받침되어야함.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필요하다고 판단
- 위원장 장영재 충실한 교육 위해 적정 등록금 필요하지만, 물가상승·장학금·국가재원 등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립대 전체가 국가 정책상 동결 기조라, 학생 반발이 크지 않아도 대학이 독자적으로 인상 결정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음. 인상 시기·폭은 더 면밀한 검토 필요함
- 이석호 위원 등록금 책정 관련 타 대학 진행 상황 문의
- 장익영 위원 한국체육대의 경우, 작년 등심위에서 학생들에게 올해 등록금 인상 예정이라고 이미 안내한 바 있으나, 국가 정책의 동결 기조로 인해 결국 계획을 철회함. 올해에는 등록금 인상으로 기대하는 금액보다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액이 많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다가 줄어드는 경우에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금 인상은 어려울 것 같음. 2027년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 예정에 맞춰 그때 등록금 인상 여부를 본격 검토할 계획임
- 성욱준 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경우, 작년에 등록금 5% 인상 시 6~7억 증가 예상하였고 학생들과 협의가 끝나고 등록금 인상할 계획이었음. 하지만 1월 초 교육부 동결 요청으로 철회되었음. 올해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최대 1.5배에서 1.2배로 줄어들었음.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으로 기대하는 금액이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얻을 금액보다 적어 등록금 인상 동력이 떨어진 상황임. 현재는 사립대의 등록금은 400

만원에서 500만원 대로 서울과기대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립대에서 등록금 인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서울과기대와 타 사립대 간의 등록금 격차가 발생하여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내년에도 전략적 측면에서 등록금 동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임

- 손현례 위원 등록금을 399,900원으로 인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예산팀장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인상폭이 계열1은 354,100원, 계열3은 390,100원임
- 이은실 위원 학부 인원들이 증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다양하게 고려해야 함
- 위원장 장영재 등록금 연계 변수 너무 많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결국에는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성욱준 위원 학교 순세계잉여금 감소 추세인데 재정 압박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위원장 장영재 학교 재정 압박이 심해져 학교 기본적인 운영이 힘들어지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현재 다양한 국가지원금 유치 위해 노력 중임. 최선 다한 후 수단이 없으면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검토 필요함
- 이김용출 위원 등록금 인상은 학교 재정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지만 무작정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님. 모든 국립대가 인상한 후에 등록금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위원장 장영재 현재로서는 다른 국립대에서 등록금 인상 기조 시 같이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올해에는 국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인상 흐름으로 보임. 서울대10개 정책으로 지역거점국립대에 막대한 재정 투입되고 방송통신대와 같은 국가중심대는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해당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 다양한 정책 지원 등을 설득할 예정임
- 위원장 장영재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 확인
- 위원 모두 동의함
- 위원장 장영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

- 위원장 장영재 간인/간서명 위원으로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지정

---

- 위원장 장영재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폐회 선언 (2025.12.30. 17:07)